

삼성전자 7700원, 테슬라 74달러 소수점 거래 증권사, MZ유입 기대

금융위, 올해 해외주식 서비스
내년 3~4분기 국내주식에 도입
배당금 받고, 의결권 사용은 안돼
카카오페이·토스증권 수혜 예상

앞으로 삼성전자 0.1주(7700원어치), 테슬라 0.1주(74달러어치)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 소수점 거래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030세대 고객을 주 타깃으로 하는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핀테크 기반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해외주식과 함께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해외주식, 내년 3~4분기 중 국내주식에 대해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투자자도 배당금을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해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온주(온전한 한주)를 보유한 것이 아니라 의결권은 사용할 수 없다.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아직까지 방법과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2곳의 증권사에서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침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거래 규모는 한국투자증권 7억 5000만달러(8775억원), 신한금융투자 2억 7000만달러(3158억원)에 달한다.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소수점 거래 이용자의 75%가 2030세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2030 고객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핀테크 기반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연내 모바일레이딩시스템(MTS) 공개에 맞춰 소수점 거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홍 카카오페이증권 대표는 “금융위의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허용안을 환영한다”며 “주식 소수점 거래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MTS 출시에 맞춰 편리하고 안전한 소액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의 70%가량이 2030세대인 토스

증권도 금융당국의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반겼다. 지난 3월 토스증권은 초보 주식 투자를 타깃으로 보다 쉽고 단순한 사용자환경(UI)과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는 MTS를 출시하기도 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빠르면 10월 중 해외주식 거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 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증권사인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 등도 소수점 거래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식 소수점 거래의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접근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소수점 거래는 소액투자자들의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라며 “대형주식에 대한 투자가 쉬워져 소액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함에 따라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소수 종목에 집중된 개인투자자의 투자 행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다시 2000명대… 추석연휴 전국확산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0명 기록
서울 804명 등 수도권 1656명 발생

추석을 앞두고 서울, 인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방역 조치 완화·영향으로 분석된다. 추석 연휴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전국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080명을 기록, 6일만에 다시 2000명대를 넘어섰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057명 발생한 가운데 지역별로 서울 804명, 경기 688명, 인천 164명 등 수도권에서 1656명(80.5%)이 발생했다. 수도권 확진자 수가 1600명을 넘은 건 수도권 확진자 발생 이후 처음이다. 지난 한주(9~15일) 간 수도권 환자는 1326.4명으로 전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80명으로 집계된 1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뉴스

대비 145.7명 증가했다.

서울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808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808명이 늘어 8만8364명이 됐다. 서울에서 하루 동안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이다. 직전 최다 확진자수(677명)보다 무려 131명 많다. 인천 지역 역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체계에서 일부 병역 조치를 완화하면 유행 규모가 커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병역 긴장감이 다소 낮아지고 인구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행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가 다시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추석특별방역조치가 시작되면서 이번 연휴 가정 내 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모임이 허용돼 우려를 낳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석 연휴 코로나19의 비수도권 확산 가능성에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의을 주는 상황도 우려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심화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 ESG경영 노력을 의무화하면서 수익성 개선 노력도 더 소홀해질 수 있다. 이미 지난해 공기업 당기순이익이 6000억원 손실로 적자전환된 가운데, 결국 세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웅 기자 juk@

공공기관, 수익 뒷전… ESG 매진할 수도

당장 조달사업법은 조달절차에서 ESG 가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바꿔, ESG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입장 조차 어렵게 했다.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 부작용도 예상됐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에 ESG 경영 고려를 의무화한 국민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이 여러 주요 기업 대주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 ESG를 이유로 부당하게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뿐 아니라 ESG를 확대하지 못하는 협력사들에 불이



전통시장 방문한 문승욱 장관

방역상황과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아

/손진영 기자 son@

‘코로나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 연장

금융위, 3월 이후 정상화 방안 내실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기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권도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공감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이후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내실화한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상황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車, 글로벌시장 점유율 ‘적신호’

» 1면 ‘현대차·제철, 강성노조’서 계속

9000대씩 이뤄지고 있다.

미국 판매법인은 판매량 확대를 위해 추가 물량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내 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팰리세이드는 울산 2공장과 4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태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나 국내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노조의 반대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019년 팰리세이드 출시 당시 물량 부족으로 증산을 고려했지만 울산 4공장 노조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결국 팰리세이드의 출고 대기 기간 장기화로 다른 차종으로의 이탈현상도 확대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현대제철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 회사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